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5)(1/29/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1 장 온갖 좋은 은사들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구함, 4-7 절

히 1:3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 86:8 -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벤전 1:3-4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 영원한 영광의 광채이시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 길을 가고 있는 내 영혼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주 앞에서 나의 입은 말을 잃고, 침묵으로 주께 아뢰기 뿐입니다. 나의 주여, 내게 오시는 것을 언제까지 지체하실 것입니까? 이 비천하고 가련한 자인 내게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해 주소서. 주의 손을 내미셔서, 나를 기쁘게 해 주소서. 주의 손을 내미셔서, 이 가련한 자를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주 없이는 내게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기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나의 식탁은 텅 비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돌아오셔서, 임재의 빛으로 내게 새 힘과 자유를 주시고, 내게 미소를 보여 주실 때까지는, 나는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5.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기뻐할지라도, 적어도 나만은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신 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할 수 없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되고, 주께서 나의 내면에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기를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6. <그리스도> 보라, 내가 여기에 있다. 보라,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네게 왔다. 네 눈물과 네 영혼의 갈망,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낮추고 애통해 한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네게 오게 하였다.

7. <제자> 주여, 나는 오직 주님만을 누리기를 갈망하여, 주를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께서 먼저 나를 움직이셔서, 주를 찾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주의 종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하신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데, 주의 종인 내가 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약함을 늘 기억하고서, 주 앞에서 내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 외에,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온갖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역사는 지극히 선하고, 주의 판단은 참되며, 주의 섭리가 만유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신 주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과 모든 피조물들이여, 오직 주만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말씀과 해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래 살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그네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애굽에서 크게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역시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하여 귀환 여행을 떠난 나그네 공동체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로 묘사하심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나그네임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와 타국인은 그들만의 독특한 정서와 내면의 어려움이 있다.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와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타국인의 심정, 나그네의 마음, 소수계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정서를 생각할 때 그냥 힘들고 서럽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정서를 영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때때로 이민자로서의 힘든 마음과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은 하늘 나라를 본향으로 하는 영적 나그네라는 의식을 상기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나그네는 남들보다 더 큰 외로움과 아쉬움과 곤고함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깊은, 그리고 더 따뜻한 위로와 안식이 아닐까? 시편에 기록된 처절한 기도문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그네로서의 외로움과 탄식이 구구절절에 묻어나는 절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나그네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1) 하나님은 나그네를 돌보신다. 출 23:9 -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 10:19 -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시 146:9 -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다. 이 땅의 육신적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나그네들인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주님은 영적 여행 중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신다.**

(2) 나그네인 우리는 다른 나그네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 때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우리가 도와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듯이, 우리 자신도 다른 나그네들이 안식을 얻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디도는 교회를 섬기는 감독의 자격 요건 중의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딤후 1:8 -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3) 나그네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 벰전 1:17 -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벰전 2:11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는 안식과 평안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행 길에서 타락하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4) 진정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나그네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는다. 베드로는 벰전 1 장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흠어진 나그네”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다. **벧전 1:3-4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산 소망이 그들이 비록 고난 중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벧전 1:6)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했다. 영적 나그네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간구해야 한다. 나그네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오늘도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안식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영적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삶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3. 다양한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평안과 안식의 은총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